

Canon 12색 안료잉크 'LUCIA EX' 멍치치 않고 원본 그대로 표현

캐논이 공급하고 있는 LFP프린터는 크게 CAD와 GA로 나뉜다. CAD 제품군은 5색의 '염안료 리액티브 잉크'를, GA 제품군은 8색과 12색의 '안료잉크'를 사용한다. LFP잉크젯기인 iPF6410는 LUCIA EX잉크를 사용한다. 잉크는 일본 캐논에서 현지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기존 화질을 뛰어넘는 컬러 개멋 실현

새롭게 개발된 12색 안료잉크(LUCIA EX)는 3종류의 특색 잉크와 농담을 표현하는 4색의 그레이 잉크를 새롭게 채용해 색재현성을 높이고 광택계열 용지는 물론 매트계열 용지까지 선명한 출력이 가능하다. 바위의 질감뿐만 아니라 물결의 질감까지 멍치치 않고 원본의 느낌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내구성이 향상돼 출력물의 아름다움을 보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작업시간 단축 및 잉크효율 증가

캐논 iPF6410은 12색 잉크 중 포토블랙과 매트블랙의 교체없이 해당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해당 미디어에 맞는 블랙잉크가 준비돼 즉시 출력이 가능하며, 잉크 변환작업으로 인한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없다.

별도 RGB잉크 탑재로 강렬한 원색 표현

캐논 플로터만의 장점인 RGB잉크 탑재로 강한 원색의 농도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다. 색의 3원색인 RGB를 각각의 개별 잉크로 표현해 원본에 가까운 컬러를 표현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

4가지 블랙잉크로 어두운 색의 풍부한 표현과 정확한 색재현성 확보

최적의 명령을 통해 제어된 잉크 배치로 잉크 특성에 맞춘 보다 깊은 블랙과 어두운 영역에서의 디테일을 충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사진의 품질 향상과 가장 뛰어난 계조 표현력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수잉크

GA제품군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인쇄물을 위해 12색(일부 8색)의 잉크를 사용한다. LUCIA EX 12색 안료 잉크는 색재현성을 높이고 다양한 용지에서 선명한 출력이 가능하다. 고정밀 프린터 헤드 테크놀로지로 4피코리터의 잉크 방울 분사가 가능해 입체감을 살리며 고품위 사진 화질을 제공한다. 옐로우 안료의 변경에 의한 녹, 황, 적 영역의 발색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암부 색영역이 향상돼 풍부한 계조표현이 가능하다. 사진품질의 중요한 요소인 검은색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잉크 설계를 실행해 깊은 발색을 표현했고, 스크래치 방지 강도를 향상시켜 잉크 표면이 외부에 스쳐도 스크래치가 잘 생기지 않는다.

문의 _ 캐논코리아 1588-2500